

모든 것을 재건한 참된 리더자 느헤미야
-복음으로 여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1:1-7, 요한계시록 2:10

정윤돈 목사님

* **느1:1-7** 하카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대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 **계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준거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성령역사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에 절대불가능한 질병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교회를 위하여 전도, 복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직장과 업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여 생명 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미션과 레마를 발견하여 내가 당장 도전하고 실천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지난 주에 있어서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과거에는 교수님이 유학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배워온 노트 하나로 20~30년 사용했는데, 요즘은 3~4년이면 옛날 지식으로 변한다고 하더라. 지금은 한 달 만에 바뀌어 버린다. 변화와 새로운 것이 너무 많으니 1~2주 전에 했던 말도 틀린 말이 되어버린다. 요새 구글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모든 편지를 AI로 다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1인 기업시대, 에이전트시대로 가고 있다. AI가 연봉 1~2억의 직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지난 주에도 제가 AI로 작곡해 봤는데 너무 잘 나오더라. AI를 활용하여 유튜브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지식을 배우고 작은 돈부터 투자하는 인턴십을 해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직업들도 다 없어진다. 예를 들면 게임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약 하나 먹으면 머리색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염색화사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3~4년 전만해도 아이비리그 학생을 오라고 하는 회사가 많았는데 작년에는 취직이 어려웠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관리자들이 신입 5~10명에게 시킬 일을 AI를 활용하여 다 해버리니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뽀따다도 경력직을 뽑는 것이다. 그런 준비를 안해 놓으면 포탈 되는 일도 못하게 된다. 아니면 작은 돈부터 기업에 투자하는 연습도 해야 한다. 책을 하나 읽었는데 동대문 알부자가 쓴 책이었다. 사업을 하다가 가진 자본이 몇 천 되기도 하고 몇 십억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 즉 돈을 가지고 그것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된다. 땀을 흘려 얻은 것으로 공부한 돈은 든든히 사기기 때문에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이다. 아르바이트도 음금이 풍부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지도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일반은총 받은 것을 다 한 것이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후대 중에 그런 리더자가 계속 일어날 줄 믿는다. 여러분은 마인드셋을 다시하고 리더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지 않고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다. 1부에 새가족이 오셨다. 유튜브로 메시지를 듣고 은혜받고 왔다고 하더라. 여러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신앙을 찾게 되고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 과정과 아픔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딛고 일어나면 된다. 그런 노후와 아픔이 회복할 그릇이 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참된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냥 살지 말고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생명 긴 헌신을 하였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할 일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을 잊는다. 그런 의미가 없다. 느헤

미야는 그렇지 않았다. 인정받은 후에도 예루살렘의 성문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울었다. 우리는 가치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한을 가져야 한다. 왜 이를 갖고 한을 갖는가. 내가 입은 피해 때문에 그러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우리가 역사에 남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1인 기업시대이다.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망한다. 그래서 나와 있을 때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방법이 다르다. 예배는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내 영혼이 잘될일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배에서 모든 응답을 얻어야 한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졸고 있고 딴 생각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풍성하지 않으니까, 육적인 문제 근심, 걱정,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혼적인 것, 내 사상, 철학, 내 전문성, 지식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우리 몸과 사상과 철학과 지식을 뛰어넘어 내 마음과 생각, 육신까지 지배하여 영혼이 잘될일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하늘보좌를 움직인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얼마 안된다. 조금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그 쪽으로 그 길로 그 생각으로 성령충만 받으면 그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 성도님이 명동에서 에어비엔비를 하는데 전도지를 만들어서 캠프하려고 한다. 12전도하는 지교회현장으로 하려고 한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전도지를 만들어 QR로 두려고 한다. 요즘엔 번역도 잘 된다. QR로 링크되어 영상도 보여주려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 걸어도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앞으로 게놈프로젝트가 잘 되면 약 먹고 20대로 젊어질 수도 있다. 이미 성경은 앞서고 있다. 그때는 900년도 살았다. 그래서 지금 운동하고 준비하고 말씀준비하고 미래에 먹고 살 것도 지금부터 준비하라. 포기하면 안 된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루를 성공해야 한다. 참된 복음의 리더는 위기의 때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게 십자가의 리더십이다. 왕 중의 왕이 되셨다. 그 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도적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리더가 아닌 사람은 남에게 책임 지우고 남 비난하고 뒷소리하고 핑계대고 아우댄다.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아무 것도 안 할거야. 놓고 있을 거야. 게을러 거야. 먹고 놀거야. 얼굴에 꼭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냥 노력만 하면 안 된다. 먼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이유와 방법과 방향과 지혜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라고 하니까 지 머리를 돌려서 이상한 짓하고 그러면 안 된다. 먼저 강단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만물을 주면 거기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저 밀비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의 모델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이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다. 당시 이미 1차, 2차 귀환 때 성전은 완성되었다. 성벽을 지을 때는 중간중간에 땅대가 다 있어야 한다.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과 파수대와 성문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말씀개혁까지 완성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다. 지도자는 푸지람을 해야 할 때는 강하게 푸지람하고 조용하고 약한 사람을 수용해야 할 때는 잘 수용한다. 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느헤미야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포로기의 역사적인 배경과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는 남북왕조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다. 우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과 성문을 재건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신바벨론)도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 후로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하였고, 제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되었다. 로마도 그렇고 모든 제국들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적국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 중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 나라에 중용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다aniel을 인정해서 자기 제국을 강하게 했고 그 제국을 그렇게 다 도와주어야지 전쟁하지 않고 자기네 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도 인정해 주고 포용적인 정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어쨌든 간에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에스라도 그렇고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다. 에스라도 그런 분위기 때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적들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시대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까지 성장한 것은 이민자들이 와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대학을 가고 성장을 해서 다 그렇다. 일본 미쓰비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대기업을 이루었는데 트럼프는 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도 해외에 더 많은 인재, 다문화, 다민족이 와서 국부총리까지 할 정도로 각 분야를 살릴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일민족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내 나라 민족처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3차 귀환 때 유다 백성의 리더자로 세워진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느헤미야도 홀몸이지만 얼굴이 안 좋아보니가 황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 내가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얼굴을 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네 내가 가서 회복하고 와. 돈과 사람을 다 줬다. 이렇게 그릇이 이방 왕이 더 크기 때문에 제국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단 52일 만에 백성들을 돌리하여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였다.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회복했다. 여러분도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할 때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꼭 해야 한다. 우리 부교역자 중에 아남현 목사님 거꾸로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뭐든지 제 시간에 안하네. 맨날 늦고 천천히 하고 그래서 출업을 해야 하는데 논문을 안 쓴다. 논문을 쓰려면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한 달 전에도 제목도 없고 일주일 전에도 안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3일 만에 써서 졸업하더라. 집중력이 대단하다. 무슨 말이나. 벼락치기라도 미리 공부한다. 어떤 학생의 이야기인데 미국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벼락치기만 했다고 하더라. 어떻게 미국 대학을 졸업했다고 물어보니 그래도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하루 전에는 벼락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벼락치기를 매일 했다고 한다. 집중해서 하면 다 된다. 벼락치기라도 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하루

한 번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영적인 것도 지금 응답 받으면 지금 한 번이라도 전도하고 캠프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는다.

(2) 두 번째에서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 13장으로 되어있다. 1장 처음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진정한 영적인 리더와 서밋은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시간이고 기도시간이다. 느헤미야는 그 비밀을 알았다. 2장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다. 3장은 성벽을 분담하여 성벽건축을 실행하는 장면이다.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였다. 양문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 줄 믿는자들을 바란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그리고 백성들과 재건을 시작하는데 3장 5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꼭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렇다. 여러분은 뒤로 빠져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성공자고 그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의미있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그런 드고아의 귀족처럼 살al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성경을 보면 또한 금장제(금은세공업자)들과, 향품장사들도 참여하였다. 3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제 할해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거”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돌을 깎는 노동과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팔을 뻗고 노동에 뛰어들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란다. 마른 자리만 돌면 안된다. 어디를 가든 귀찮은 자리에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이 성공자이다. 또 3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전반을 다스리는 할로레스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일을 다 안했는데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부자이고 대접부였는데 자기 자녀들을 보내서 그 성벽을 중수하는 노동에 참여시켰다. 이게 ‘노블리소블리주다.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것. ‘노블리소블리주다’라는 말이 뭘냐면 전제가 일어나 마을이 정복당했는데 백성들을 다 죽여서 하나씩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살리고 귀족들, 지도자들만 죽이라고 해서 나머지 백성들을 살렸다.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을 죽이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느헤미야 3장 10절, 28절, 29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무밧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3:28 ‘마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29 ‘그 다음은 입행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번엔 캠프기간인데 지역지역 내 앞에 주변을 전도하기를 바란다. 박성철 장로님이 학비와 용돈을 다 주셔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분이 매주 전도를 하신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지역 주변에서 전도를 한다. 시간나면 차 보내고 가서 산책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이다. 땀땀 놀러서 선물을 주고 오 주변서 전도한다고 한다. 내 앞을 중수하라. 다음으로 4장에 보면 산발랴이 성전건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 ① 산발랴는 처음에는 성벽재건을 비웃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랴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고 화도 내지 말라. 방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잘 하는 사람을 보면 비웃는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있는 사람이다.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들은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별로고 2가지 장점이 있다. 좋은 말을 하지 말고 1~2가지 장점을 키워 주고 칭찬해 주라. 그래서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 흑암세력이 밟살난다.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발발 댄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한테는 내 편이야 내 자식이야 이된다. ② 또 “무시”하기도 하였다. 즉 “여유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라고 조롱하였다.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 곧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유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③ 그레도 포기하지 않자 “위협하고 협박함”도 하였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거”라고 위협하였다. 백성들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계속 건축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꺾어내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성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와 정복사를 죽이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때에 시험 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전도자, 교회, 귀족들과 성도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리더십이다. 안 그런 사람은 누가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에 빠지고 비난한다. 그게 그 사람의 영적상태가 완전복음이 아니어서 그렇다. 그건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없다. 5장에서는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땅과 집을 돌려주고 부채를 탕감하여 주었다. 내가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빚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탕감하고 성전건축에 올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다. 그게 리더십이다. 6장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대적들의 시도도 볼 수 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4번이나 “오노”평지로 오라고 하였다. 끝까지 안오니까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는 누명을 씌웠다. 악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을 한다. 앞으로는 AI로 목소리와 영상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걸로 사기당한다. 그런 시도가 이미 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런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셔야 한다. 7장은 돌아온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8장에 보면 이때 백성들이 스스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자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정말로 중요한 재건은 말씀의 재건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9장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죄

를 자복하는 장면이다. 낮 4분의 1 즉,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갱신되어야 한다. 10장은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명단을 기록하고 봉인하는 장면이다. 백성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름을 쓰고 봉인했다. 11장은 위험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뽑았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적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쳐들어와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거기서 지킬 사람을 뽑은 것이다. 12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기록하였다. 아주 중요했다. 모든 영적인 것을 회복하려면 레위인과 제사장, 목회자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현규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다. 이 시대는 신학교도 안가고 목사를 안하려는 시대이다. 목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목사가 없으면 절대 혼자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십일조도 안 내고 목회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목회자들 다 일러라 간 것이다. 목회자가 태백하고 대리운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있다. 성도들이 진짜 리더가 되어서 박상철 회장님처럼 학비 다 대주고 100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100개의 교회를 짓는 그런 종직자가 나와야 한다. 그 응답을 참된 영적 리더가 교회 안에 종직자, 후대 중에서 나오지 않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모아서 대접하고 십일조를 내고 찬양하고 성전봉헌식을 한 것이다. 성가대도 중요한 영적인 제사장이다. 없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된다. 그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직자들의 명단을 적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대접하였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성벽봉헌식을 하였다.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 약 12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자 또 문제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모습이다. 예배를 매주 드려야 한다. 수요일에, 금요일에도 드려야 한다. 계속 회복하는 것이다. 13년 지나니 또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13장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하는 장면이다. 느헤미야 마지막장 13장에는 네 가지 중요한 개혁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① 돌아와서 보니 과거에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성경을 다시 깨끗하게 하였고 ②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고 ③ 이방인들과의 결혼문제를 개혁하였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문화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게임을 좋아하고, 세상음악, 돈, 성공을 더 좋아한다. 그게 다 음란한 것이다. 그것을 바꾼 것이다. ④ 온전한 십일조를 하도록 하였다. 종교개혁을 하고 마지막 기도로 마치는 것이 전체 내용이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참된 리더가 느헤미야가 재건한 내용들과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1)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들이다.
 - ① 첫째로 성벽과 파수방대와 성문을 재건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려 백성과 함께 성벽을 다시 세웠다. 자기가 성실하고 리더십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 ② 두 번째로 무너진 민족과 나라를 재건하였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문이 열리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성벽을 만든다는 것은 적군을 방패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가면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했다. 우리 조상의 무덤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대제국에게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말은 속국이 다시 독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왕은 ‘그래’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옆에 다른 사람이 듣고 안 된다고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이다.
 - ③ 세 번째로 무너진 믿음과 말씀을 재건하였다.
 - ④ 무너진 예배와 영적 회복을 재건시켰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모든 것을 재건하였다.
 - ⑤ 무너진 사회질서, 윤리, 도덕적인 것을 재건하였다. 기록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재건하였다.
 - ⑥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참된 리더십을 재건한 영적인 지도자였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난 리더였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했으며, 공적인 자리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예수님처럼 섬김과 순종과 사랑과 회생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들의 참된 지도자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 (2) 그렇다면 21세기에 필요한 참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 ① 인공지능과 자동화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 ② 금융을 이해해야 한다. 금, 주식, 코인, 채권 등의 국제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한다.
 - ③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AI의 잘못된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정보에 편향되지 않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알고리즘 때문에 편향적인 정보만 계속 본다. 구분하지 않으면 그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에 노예가 되어버린다.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 보다가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중심으로 인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말씀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 사람 말을 듣고 판단하거나 편향되면 안된다.

급변하는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참된 리더십을 준비하여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영적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참 리더는 그런 리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변함이 없는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충만을 받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가득하고, 왕의 왕되신 주님이 나의 삶과 나의 영과 마음에 주인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